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회사 협의회

NEWS LETTER

vol.20 - January 2019



photo by 오흥식 대표 (엘오티베콤)

Contents

회원사 동정	3
· 신성이엔지 - 2018년 안전환경대상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대상	
· 엘오티베콤 - 2018년 (주)엘오티베콤 자선의 밤 행사 개최	
· 삼진엘앤디 - 주한미국 모범장병 초청 2018년 송년행사 개최	
협성회 혁신교류회를 소개합니다	6
· IM1 팀	
· CE4 팀	
협성회 소통 - 회원사 완제품 소개 (범진아이엔디)	8
전문가 칼럼	10
·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순하 변호사, 김병규 전문위원)	
· 2018년 한 해를 반추하며 - 전국을 달군 노동이슈 7개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SERICEO] 차량 공유, 네 바퀴에서 두 바퀴로	16
달라지는 2019년 연말정산 혜택 정리	18
협성회 임직원 참여마당 - 가로세로 낱말퀴즈	20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소식지 참여안내	21
[삼성전자] 깨끗한 거래문화 당부사항	22
삼성전자 'VOC 접수 채널' 운영안내	23

신성이엔지

2018년 안전환경대상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대상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

2018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안전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중소기업)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은 ISO 45001인증에 참여해 정식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안전보건의 경영의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17년 환경안전사업부를 구성하고 통합 안전보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명 : (주)신성이엔지
- 설립 : 1977년 1월
- 수상 개요

신성이엔지는 1977년 설립되어 42년 동안 냉동 공조, 항온항습기, 클린룸, 공장자동화장비, 태양광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핵심으로 혁신을 이어가며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용인사업장은 클린룸의 주요 장비의 FFU(Fan Filter Unit)를 생산하며, 2017년 대표 스마트공장에도 선정되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용인사업장은 대내외 안전보건 경영환경 변화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SO 45001을 취득 하였으며, 안전보건의 경영의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17년 통합 안전보건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나의 안전, 가족의 행복, 희망의 100년, 신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4대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보건 회의체를 운영하며 사업장 순회점검을 시행해 최근 2년간 187건의 고위험 요인을 발굴 하고 개선하였고 또한, 이것을 전사에 공개해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구축과 전 직원 상호협력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작업부하 가시화 시스템 CPS'는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하는 능력을 확보하였고, 협력사 임직원까지 '안전관리 우수사원 표창제도'를 매달 시행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는 앞으로 안전경영 확대운영을 통해 대내적으로 안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협력사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엘오티베쿰

2018년 엘오티베쿰 자선의 밤 행사 개최

2018년 12월 13일 기흥 엠스테이 호텔에서 엘오티베쿰 자선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엘오티베쿰 자선의 밤 행사는 초기에 회사 임원들과 한 해를 보내는 회식 정도로 시작하였으나 해가 더해갈수록 ‘기업인으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곳에 모여 따뜻한 음악 선율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후원금			
2013	2014	2015	누적모금액
13,280,000	13,880,000	23,200,000	
2016	2017	2018	183,570,000
38,950,000	42,690,000	51,570,000	

[오홍식 대표, 정호균 교수&비즈베이 재능기부 공연]

엘오티베쿰은 자선의 밤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어져온 자선의 밤 행사로 모인 그간의 누적 모금액은 약 1억 8천만원을 넘겼고,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현재 속초시, 오산시, 한사랑 장애영아원, 동방사회 복지회 등 다양한 기관에 기부되어지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한사랑 장애영아원, 오산시 장애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학협력과 대기업 채용연계 활동과 대학, 고교 등에 장학 사업을 진행하여 인재육성과 고용창출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지역자치단체 기부활동]



[오산시 다문화 가정 어린이 합창단(라온제나) 재능기부 공연]



[저소득가정 평창 올림픽 관람]

엘오티베쿰은 지속적으로 매년 기부 & 봉사의 형태로 아름다운 나눔을 기획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삼진엘앤디 이경재 대표,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 2018년 송년행사 개최

협성회 회원사인 (주)삼진엘앤디의 이경재 대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는 지난 18년 12월 12일, 13일 양일간 주한미군 모범장병 80여명을 초청하여 스키투어 행사를 진행하였고, 13일 저녁에는 모범장병과 미8군을 비롯한 각군 장성, 정계, 학계의 전,현직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송년행사에는 주한미군사령부 Michel A. Minihan 참모장, Rick E. Black 공보실장, 한미연합사령부 신상범 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강태진 서울대교수 등 관련 귀빈들이 참석하여 축사와 건배제의를 하며 송년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송년행사 환영사에서 이경재 대표는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무역대국으로 성장 할 수 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안보를 뒷받침한 덕분”이라고 참석한 미군들을 격려하였고 한국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미군장병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00여명의 기업인, 예술문화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2005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주한미군장병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국음식과 한국문화 체험, 그리고 한글강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두차례 이상 클래식음악 관람행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매년 모범장병 3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 제주도 '역사문화탐방행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삼진엘앤디 이경재 대표는 2009년부터 협회장직을 맡아, 가장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한미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M1 팀을 소개합니다.

(팀명 : 모바일 팀)

팀 장 : 서울반도체 전경준 차장
총 무 : 일진디스플레이 박현진 차장
팀 원 : 서울반도체, 일진디스플레이, 디에이피, 대덕GDS, KH바텍, 알머스,
에스코넥, 은성프린터스, 하엠

자문위원 : 삼성전자 지역배 상무

IM1 팀은 서울반도체, 일진디스플레이, 디에이피, 대덕GDS, KH바텍, 알머스, 에스코넥, 은성프린터스, 하엠 등 총 9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대부분 모바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상호 공감대 형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에스코넥 경기 광주에 소재하며, 삼성 모바일 사업부 금속물 내.외장재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하엠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삼성 휴대폰 충전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경기 안산 소재, LED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대덕GDS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PCB(Printed Circuit Board)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제품으로 스마트폰 MAIN 기판, 카메라 모듈, 웨어러블 기기의 PCB 등이 있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평택 소재의 Tablet 및 Smart Phone, 그리고 차량용, 가전용 Touch Screen 제품과 LED 사파이어 기판과 잉곳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알머스는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전화 배터리팩, 액세서리 등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은성 프린터스는 제품의 인쇄물(매뉴얼, 카탈로그, 포스터, 출판물)과 패키지(포장용 케이스, 래핑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디에이피는 경기 안성 소재하고 스마트폰 및 전장 PCB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KH바텍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제1공장(본사)과 제2공장에서 소형 정밀 아연·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제품과 조립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E4 팀을 소개합니다.

(팀명 : CE4팀)

팀 장 : 전영호 이사 (대한공조)
총 무 : 조성업 과장 (삼원금형정공)
팀 원 : 기오현 부장 (한영피엔에스), 권오덕 차장 (자강산업), 한강민 차장 (루멘스)
은청기 과장 (삼오텍), 송제광 대리 (연호전자)

자문위원 : 삼성전자 김윤영 상무

CE4팀 소속 7개 회원사는 사출 금형, 프레스 금형 LED, 사출(양산), 공조 분야에서 협력하고 기술 개발과 생산 활동의 대한 지식을 공유 하고 생산성 향상에 끊임 없이 토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 이신 김윤영 상무님과 대한공조 전영호 이사님을 필두로 하여 팀원 간에 프렌드십을 장려 하여 각사의 대한 생산 기술력 그리고 첨단 생산 공법과 많은 노하우를 공유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E4팀 회원사는 공통 테마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10% “을 달성.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젠가! 누군가! 할거라면 지금! 바로 내가 한다!”

공지사항

- ※ '19년 협성회 혁신교류회 통합 Kick-off 일정 안내 ※
- 일 시 : 2019년 3월 4일 (월)
- 장 소 : 상생협력 아카데미 교육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10)
- ※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성회 소통 - 범진아이엔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주요 생산품은 부품, 모듈, 검사장비 등 전자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되는 B2B향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협력사 고유의 원천기술 및 노하우를 살려 B2C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도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Tonn 아웃도어 블루투스 스피커 BTA-301

-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초소형 멀티 블루투스 스피커
- 아웃도어 활동에 꼭 필요한 생활방수(IPX4), 플래시라이트 기능, 카라비너 고리 포함
- 다양한 카메라 App과 호환되는 블루투스 카메라 셔터 기능
- 스마트폰 분실 방지 알람
- 작은 크기에서 울려 퍼지는 파워 사운드



Tonn 레이저포인터 블루투스 스피커 BTA-302

- 사무용으로 적합한 레이저포인터 겸용 블루투스 스피커
- 화이트+골드의 깔끔한 디자인
- 레이저 포인터 일체형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유용
- 다양한 카메라 App과 호환되는 블루투스 카메라 셔터 기능
- 스마트폰 분실 방지 알람



Tonn LED 블루투스 스피커 BTA-303

- 데스크 스탠드 및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LED 블루투스 스피커
- 3단계로 밝기 조절 가능한 LED Light
- 기기 자체에서 선곡 및 볼륨 조절 가능
- 두 대를 동시에 모바일/PC에 연결하여 입체적인 스테레오 사운드로 음악 감상이 가능
- 거치대를 자유롭게 연결/분리하여 사용 가능
- 블루투스 카메라 셔터 기능과 자체 조명을 통해야간에도 멋진 사진 촬영



VCP400 (보조배터리+카페 진동벨)

- 원거리에 있는 대기 고객을 신속하게 호출
- 고객이 대기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충전 가능
-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모든 기종에 호환
- 적층형 구조로 공간 활용에 효율적
- 디지털 타입의 호출 번호 표시
- 브랜드 로고 스티커 부착 시 브랜드 이미지 지속적 노출 가능



공기순환 시스템 WAVEN

- 미세먼지 차단 효율 99.5%
- 미세먼지 및 가스 센서의 수치에 따라 실내 유해공기는 배출, 외부의 공기는 필터로 정화하여 실내로 유입
- 별도의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 가능
- 제품 설치 상태에서도 창문 완전 개폐가 가능한 특수 디자인 설계
- 날씨에 관계 없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가능
- 창문 크기에 따라 거실형/일반형 선택

※ 관련 문의 : 범진시엔엘 마케팅팀 (070-4603-3970)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권순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병규 전문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이번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7. 2.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메시지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2017. 8. 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 예방대책은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 재	개 선
책임주체	사업주 중심	원청·발주자 등 책임 강화
보호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보호범위	신체건강 보호	정신건강까지 보호
사고조사	수사·처벌	구조 개선까지 유도
안전보건관리	외부위탁	정규직 직접 수행

2018. 1. 23.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현재(2017년 기준 964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①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 재정립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실천, ②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조선·화학·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 추진, ③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 실시 등 산업안전 감독 실효성 제고, ④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안전관리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한편, 지난 2018. 2.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8. 11. 1. 국회에 제출(정부 발의)되었고, 2018. 12. 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8년만에 추진되는 전면적 개정으로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등 기업의 책임 강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해당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의무 신설
-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조치의무 신설

2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3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을 "7년 이하"로 유지하면서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범위를 범한 경우 "2분의1까지 가중"으로 강화
-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벌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법원의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의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요한 수강명령 병과(併科) 가능

4 도급사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및 벌칙 강화

- 도급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인 경우와 "수급인 보유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급성독성물질 취급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경우에도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
-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를 현행 "22개 위험작업 또는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
-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도급하여야 함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 3.항(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 강화)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강화

5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의무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이행여부 확인의무 부과
-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 신설

6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작성·제출 및 영업비밀 심사

- 위험성·유해성 분류기준(GHS)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대체 자료 기재 가능

7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강화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및 작업중지 해제절차(해제심의위원회) 구체화

[기업이 준비할 사항]

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히고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기업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적절한 안전보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조직 운영, 전사적 안전보건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시설 파악 및 예산 투자계획 등 수립
-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작업을 파악하여 가능한 경우 직영화 조치 사전 검토, 현재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도급작업 현황 파악, 도급 시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마련,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급인 선정을 위한 내부 기준 마련
-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 저장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적절한 안전보건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 정립
- 공장 신축 및 설비 증설 등 공사 발주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위한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현장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마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준비,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 검토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준비
- 개정법률에 따른 작업중지 절차에 대응하는 내부 매뉴얼을 작성, 작업중지 해제 시 현장 작업자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동조합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대응
- 회사와 경영진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시 compliance 점검 진행,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대응



[맺으며]

고용노동부는 2018. 12. 11. 에 진행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감독 등을 전담하는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7개소로 확충**(현재 3개소)하겠다고 하였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업종 고용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신속히 국회 통과 및 공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조만간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2019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된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나 작업중지 등 제재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상당한 경영상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compliance 점검** 등을 통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노무사

2018년 한 해를 반추하며 전국을 달군 노동이슈 7개

2018년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각종 노동문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충을 토로했던 해이기도 하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오프라인상 가장 많은 관심지수를 보인 노동이슈 7개를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율 -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2019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시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올해와 비교해 10.9% 인상한 값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된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본 정부의 야심작이지만, 막상 현실화 되자 예상대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2. 장시간 근로 단축 법안 전격 통과¹⁾

국회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나 68시간(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60시간)이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오래 이어져온 데다, 이와 관련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까지 열려 선고가 임박했던 만큼, 국회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연장근로 단축 법안은 절충적인 형태에 가까웠다. 먼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됐고, 주당근로시간 상한을 1주 52시간으로 정했다. 또 8시간 내에서 이뤄지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주 근로시간,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두고 장기간 벌어진 법적 공방 역시 입법으로 정리됐다. 그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고, 근로시간 특례규정이 개정돼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감소했다.

새법에 따른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대상 기업들은 업무효율화, 유연근로제, 인력충원 등 다양한 연장근로 감축 노력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친노동정책에 기인한 노동조합 조직률 수직 상승

노동 친화적 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노동 정책이 쏟아지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대 노총은 2018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200만 조직화'를 내세웠으며, 실제 올 한 해 노조 깃발이 오른 사업장이 많았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합원이 약 7만 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산업별로 보면 금속노조는 1년간 약 1만 8,000명, 보건 의료노조는 3년간 약 1만 5,000명의 조합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칼럼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기업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 지위를 확보해 대정부 교섭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IT업계는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네이버, 넥슨, 스마트게이트,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에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의 깃발이 올랐다. 한편, 노조 깃발이 오른 이들 IT기업들은 노조 설립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 공기업 채용비리

올해 초, 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개 중 18곳을 빼고 모두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2,234건의 채용비리가 있었으며, 지방 공공기관이나 출연 기관을 포함한다면 채용비리 건수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곧 이어 시중 11개 은행에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드러나며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가슴앓이 하던 젊은이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더했다. 강원랜드의 대대적 채용비리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관련 임직원에 대해 퇴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 부정 합격자를 직권면직했지만, 채용 절차에서 발생한 비리로 부정합격 당사자를 해고하거나 채용취소 할 수 있는 지를 두고 현재 법원에서 공방이 한창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등 채용절차 투명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5. 닷 올린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2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다. 이전 모델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멈춰선 지 2년 11개월 만이다. 사회적 대화가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이다. 양대 노총이 임시회의체 성격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거듭되자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체적인 상이 그려졌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로운 얼굴로 합류해 총 17명이 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또 사회적 대화기구 본위원회 아래 업종별, 의제별, 계층별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참여가 미지수다. 지난 10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조직적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일단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6. 정규직 전환, 공공·민간 모두 갈등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전환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사유와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꼬집었으며, 정규직 전환을 심의할 기구 구성도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7. 미투 → 페이 미투... 직장 내 성차별 철폐 운동 확산

2017년 말부터 올해까지 'ME TOO'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전 세계에 미투 열풍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도 한샘, 현대카드 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국내 미투 운동의 기폭제는 서지현 검사였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다. 이후 정치계, 문화예술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구체화-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상과 같은 7개 외에도 여러 노동이슈들이 국내 산업계를 휩쓸었으며 또한 그 중 대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실업의 구제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해야 함을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익히 학습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과 내수의 진작을 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불변의 진리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입장에서 2019년도는 모쪼록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사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연장근로 제한이 더 부담된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은 어떻게든 수익을 쥐어짜서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연장근로 제한은 1주 최대 52시간 이상은 근무시킬 수 없는 법률이므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공유해볼까?

차량 공유, 네 바퀴에서 두 바퀴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일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도심 내 복잡함을 피할 수 있는 두 바퀴 이동 수단 공유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이 우리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글 우종률(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1실 수석연구원)

네 바퀴에서 두 바퀴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해외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썬카,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서비스가 출시 또는 준비중이다. 이런 흐름에 세계적인 차량 공유 기업의 가치도 나날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의 기업 가치는 약 1,200억 달러로, 미국 3대 완성차 회사인 GM, 포드(Ford),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 도시의 젊은이 사이에 차량 공유 서비스 개념이 바뀌고 있다. 차보다 저렴하고 도심 내 복잡함을 피할 수 있는 두 바퀴 이동 수단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공유 스타트업, 버드

2017년 9월 창립한 버드(Bird)는 2018년 기업 가치가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평가 받는다. 사업 모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데, 최고 시속 24km로 달릴 수 있고 요금은 1달러부터 시작해 분당 15센트가 추가된다.

기존의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차 공간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통행로만 아니면 어느 곳이나 킥보드를 반납할 수 있어 주차 고민 없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 충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버드는 일반인이 전동 킥보드를 원하는 만큼 수거해 자신의 집에서 충전하고 다시 서비스 지역에 가져다두면 한 대당 5~20달러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동 킥보드가 수거하기 편한 장소에 있으면 5달러, 불편한 장소에 있으면 20달러를 주는 식으로, 회사로서는 수거 인력 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버드는 100개 도시에서 200만 고객(2018년 11월 기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망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의 경쟁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미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된 도시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버드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된다.

■ 사업의 무게중심을 두 바퀴로 옮기는 우버

두 바퀴 이동 수단이 각광받기 시작하자 우버도 두 바퀴 이동 수단 공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교통 체증이 심한 대도시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두 바퀴 이동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사업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2018년 4월에는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업체 점프바이크(Jump Bikes)를 인수했다. 또 7월에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하는 라임(Lime)에 투자해 자체 앱에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버가 차량 서비스를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면 우버 차량 기사와 투자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버의 CEO는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도심 내 근거리 이동에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장거리 중심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사와 회사 모두 수익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서비스 확산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 미국

하지만 두 바퀴 이동 수단 공유 서비스는 신종 운송 사업이다 보니 규제가 미흡한 데다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사용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아무 데나 무단 주차하거나 버려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 “도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행인을 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 문제도 일어났다.

일단 미국 정부는 규제를 정비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업체를 선별해 영업허가를 주면서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를 제한하고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헬멧을 제공하게 했다. 또한 인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용 도로를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타모니카시는 전동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고 전용도로를 만들도록 조치했다. 한편 뉴욕시는 전기 자전거 이용을 금지했으나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전기 자전거만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나라

이미 우리나라에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운영되거나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교통법상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있다.

각종 부작용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편적인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적절한 규제가 하나둘씩 마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 위 내용은 www.sericeo.org < 경제 · 트렌드 > 산업 < '산업전망대'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2019년 연말정산 혜택 정리!!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그년도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항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

2019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감면

최근 중소기업에 취업한 16~34세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어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도 늘어나 최대 6년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변경사항
감면기간	3년 → 5년
감면율	70% → 90%
감면기한	취업 후 5년
적용범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도서/공연비용 등의 공제가 신설되어 문화생활도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에서 올해 7월부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 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3%를 넘게 사용한 의료비 비용의 15%를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은 같으나,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입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④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폐지(주의)

2017년까지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공제율 12% 인상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 7,000만원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33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주의)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동일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공제율	12%	10%

⑥ 연봉 3억원 이상인 근로자의 소득세율 변경

2018년에는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40%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1,200만원 이하	6%	6%
1,200 ~ 4,600만원	15%	15%
4,600 ~ 8,800만원	24%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8%
3억원 ~ 5억원(신설)	38%	40%
5억원 초과	40%	42%

가로세로 낱말퀴즈

①	①		②		③		
			②				
					③	④	
	⑤					⑤	
④							

[가로]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분류해서 볼 수 있다
2. 자체 엔진에서 만든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지상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교통수단
3. 기숙사에서 기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4. 2019년 최저시급 ○○○○ 원
5.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
Ex) 최근 삼성전자 임직원을 ○○하여 보험 가입 권유, 투자유치 등 부당청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로]

1.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어진 시간에 특정 방송을 시청, 청취하였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것
2. 물체가 빛을 가리어 물체의 뒤에 나타나는 어두운 부분
3. 조선 태종 이방원이 태조의 환궁을 권유하려고 함흥으로 보낸 차사를 일컫는 말,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아주 없거나 또는 회답이 좀처럼 오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
4. 삼성전자 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을 요구받거나 윤리경영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또는 ○○○○ 으로 연락
※ 22page 깨끗한 거래문화 웹툰 참고
5. 삼성전자 VOC 접수 문의전화 번호는 080-200-○○○○
※ 23page 삼성전자 「VOC 접수 채널」 운영 안내 참고

◆ 협성회 뉴스레터 <가로세로 낱말퀴즈> ◆

■ 협성회에서 준비한 가로세로 낱말 퀴즈 문제 확인 후 정답을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19년 1월 15일 ~ 1월 31일

◎ 이벤트 참여 방법 및 지급일

- 협성회 사무국 이메일 회신 (ssa.sec@samsung.com)
- 정답자 추첨 5명 (제출내용: 정답, 소속회사명,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 당첨자 차월호 발표 (차월호 말일까지 기프티콘 발송)

◎ 이벤트 선물 - 이마트_GS칼텍스 모바일 쿠폰 (3명)
- 파리바게뜨 순수우유 케이크 (2명)

12월호 <가로세로 낱말퍼즐퀴즈> 이벤트 정답을 공개합니다!

		다	슬	기			
		문			개	천	
기		화	룡	점	정		
해		가					
년	말	정	산				
				인			
				상		시	
				파	운	드	리

◆ 당첨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

◎ 롯데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3명)

에스티아이 하*경
씨유테크 박*윤
캠시스 손*주

◎ 투썸플레이스 요거생크림 1호 (2명)

크레신 황*성
파워로직스 신*경

※ 당첨되신 임직원분들께는 1월 말일까지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협성회 뉴스레터의 즐거운 이벤트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사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창립기념일
삼원금형정공	송용섭	1월 1일
유니온	강대창	1월 1일
코스텍아이앤씨	조성문	1월 1일
KH바텍	남광희	1월 1일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	글렌영	1월 4일
리모트솔루션	신홍범	1월 5일
유진테크	엄평용	1월 5일
장원테크	박세혁	1월 6일
미주정밀	이중재	1월 10일
케이엠더블유	김덕용	1월 10일
서광	이상섭	1월 12일
힘스	김주환	1월 15일
이엠텍	정승규	1월 18일
프렉스에어코리아	성백석	1월 18일
신성이엔지	이완근	1월 20일
일진디스플레이	박제승	1월 22일
금강쿼츠	김창길	1월 31일
에이앤아이	박병해	1월 31일

◎협성회 소식지 참여 안내

월간지로 발행되는 협성회 소식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매월 말일까지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사소개, 임직원 참여마당(수필, 시, 포토), 회원사 수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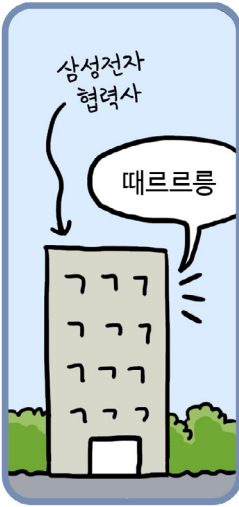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임직원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참여 문의 : 협성회 사무국 (T.031-200-8039, ssa.sec@samsung.com)

◎기사 정정 안내

지난 12월호 9 page에 실린 협성회 회원사 완제품 소개란에 신성이엔지 상품명이 손톱집진기로 잘못 기재가 되어 정정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네일샵용 하이브리드 공기정화장치' 입니다. 추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럴때 이렇게 ...



깨끗한 거래문화

깨끗한 거래문화 당부사항



- 상생협력센터 (직통전화) 080-200-3300, (이메일) ssvoc@samsung.com
- 감사팀 (직통전화) 1577-7988, (이메일) audit.sec@samsung.com



삼성전자 「VOC 접수 채널」 운영 안내

“협력회사 고충을 삼성전자에게 알려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회신 드리겠습니다.”

-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사회통념을 벗어난 삼성전자 임직원의 태도나 언행, 요구
- 기타 건의사항 및 고충 사항

VOC 창구	내용
사이버신문고	www.secbuy.com(실명/비실명 가능)
콜센터	080-200-3300(수신자 부담), 평일 업무시간 이용 가능
E-mail	ssvoc@samsung.com

※ 접수된 VOC는 상생협력센터 책임하에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회사 협의회

NEWSLETTER

vol.20 - January 2019